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의 판막재건술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장재한 김애중 육을수 고영상 구자홍 조중구 김공수

전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88년 8월부터 1993년 8월까지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으로 판막재건술을 21예에서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남 여비는 1:1.3 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5.5세 였다.
2. 술전 흉부 사진에서 평균 C-T ratio는 0.585였고, 술중 육안적 소견으로 17예에서 좌심방 비대가 있었다.
3. 술전 NYHA functional class는 IIa가 3예, IIb가 7예, III가 9예, IV가 2예였으며, 술후에는 I이 17예 그리고 II가 2예였다.
4. 술전 심전도에서 정상이 10예, 심방 조동 및 세동이 10예, 다발성 PVC가 1예에서 있었으며, 술후 변화는 없었다.
5. 심도자 검사상 술전 평균 Cardiac Index는 2.66/min/m²였고, 술전 평균 PAWP 및 LAP는 15mmHg였으며, 술후에는 9mmHg였다.
6. 질환 발생의 원인으로는 degeneration이 12예, 선천성이 4예, rheumatic이 3예, 허혈성이 2예 였다.
7. 승모판막 병변 형태로는 승모판막륜의 확장이 15예, 심건색이나 육주의 이완 또는 파열로 판막 탈출이 12예, 판막비후 및 융합이 5예, 판막결손이 1예 였으며, 협착증과 복합된 경우가 3예가 있었다.
8. 수술로는 Wooler식 국소적 판막륜성형술을 12예, Duran ring을 이용한 판막륜성형술을 5예, 판막성형술을 4예, 심건색이나 육주의 성형술을 6예, 그리고 교련절개술을 3예에서 시행하였다.
9. 술후 심장과 관련된 합병증은 심한 폐쇄부전증이 2예에서 재발하여 재수술을 하였으며, 일시적인 상심실성 빈맥이 2예, 심근허혈이 1예가 있었다.
10. 술후 평균 추적기간은 35개월이며, 3예에서 심초음파상 경미한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을 보였다.